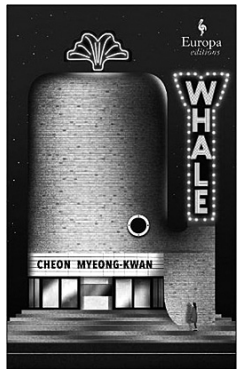


위상 높아가는 세계 속 '한국 문학'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천명관 '고래' 아쉬운 고배 '채식주의자' 이후 전전 잇따라 한국적 서사, 번역·출판 '과제'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은 불가리아 작가 게오르기 고스포디노프의 '타임 셸터' (Time Shelter)로 결정됐다.



기대를 모았던 천명관 소설가의 '고래'는 안타깝게 수상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종 후보 6편에 든 것만으로도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커상심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올해 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으로 '타임 셸터'를 선정했다. 평자들이 따르면 수상작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유망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클리닉을 모티브로 한 서사다.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1차 후보로 13편을 발표하고 최종 후보로 6편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여겨질 만큼 권위를 인정 받는 상이다.

이번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작에 포함된 천명관의 '고래'는 한국문학 또한 세계 독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고래' 번역은 뉴욕에서 활동했던 김지영 씨가 맡았다.

문학계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좋은 문학작품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후보작 낭독회에서 '고래' 한 대목을 읽는 천명관 작가. /연합뉴스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사실을 입증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6년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채식주의자'는 데버라 스미스라는 번역가가 번역을 맡았다. 데버라 스미스가 샘플 번역본을 영국 출판사에 보냈으며 대산문화재단이 지원을 해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지 출판사가 상업적 성공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우리 문학 작품을 출판할 수 있었다.

한강의 부커상 수상은 세계무대에 우리의 문학을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후로도 한강은 지난 2018년 또 다른 소설 '흰'이 다시 동일한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올라 수상의 기대감을 높였다.

'흰'은 모두 65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이다.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장 아래

65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한 권의 소설이지만 각 소제목, 흰 것의 목록들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는 것이다.

한강이 맞은 올린 부커상 수상은 이후 2019년, 2022년 우리 작가들이 연달아 후보에 포함되면서 한국문학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019년에는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1차 후보에 올랐다. 소설은 60대의 건축가와 젊은 연출가의 목소리를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커상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은 2018 프랑스 예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 사랑법'도 부커상 1차 후보에 포함됐다. 박 작가의 소설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떠오른 쿼어소설을 다룬 작품이다. 청춘의 사랑과 이별을 유머를 가미한 성찰로 밀도있게 그렸다. 동성애자인 작가 '영'이 좌충우돌하며 인생과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역시 지난해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키'가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부커상 수상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소설은 세상의 모습 것들을 응징하는 어여쁜 저주 이야기로 SF 판타지를 대표하는 정 작가의 다섯 번째 책이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배경을 비롯해 인물, 사건들이 등장하며 작가의 이색적인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부커상 후보에 포함되는 것은 향후 K컬처에 한국 문학이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한국적 서사를 어떻게 세계인의 감성에 부합하도록 풀어내고 번역과 출판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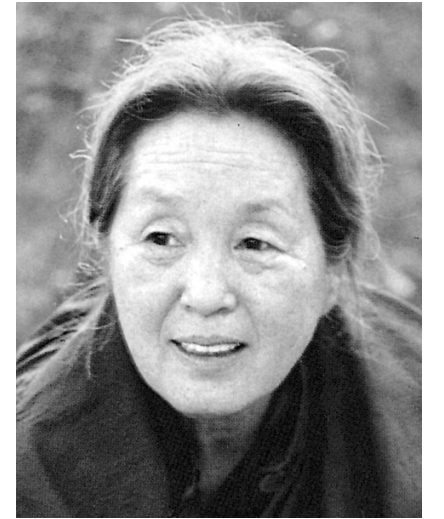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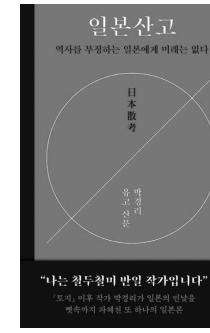
문학계 관계자는 "한국문학 세계화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번역가 양성과 번역에 집중한다면 특유의 한국적 서사가 담긴 작품이 세계인들의 선택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 박경리 日 비편집 '일본산고' 재출간

10년만에...역사학자 다나카 아키라와 논쟁 수록도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1926~2008)가 생전에 일본에 대해 쓴 글을 묶은 책 '일본산고' (日本散考)가 10년 만에 재출간됐다.



고 박경리 작가

일제 강점기를 은밀로 겪은 작가는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쫓겨 있는 식자들이 일본의 시각에 동조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경계한다.

작가 '토지'를 집필하는 도중과 완간 이후에 쓴 '중요의 근원'과 '신국의 허상' 등 6편의 글과 일본 관련 기고문 5편이 실렸다. 박경리가 1990년 월간지에서 일본의 역사학자 다나카 아키라와 벌인 지상 논쟁도 수록됐다.

다나카의 '한국인의 통속민주주의에 실망한다'는 글에 맞서 작가는 "잘못을 사과할 용기조차 없는" 일본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일본인에게 예(禮)를 차리지 말라"란 유명한 말은 박경리가 이 논쟁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다나카의 글에 대한 반박문의 제목이 됐다.

박경리는 이 글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었다. 일본이 이웃에 폐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민족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손을 잡을 것이며 민족주의도 필요 없게 된다."

'일본산고'는 2008년 작가가 타계하면서 세상

에 나오지 못 할 뻔한 것을 고인의 유족이 유품 정리 중에 원고를 발견해 이후 문학평론가 이승윤 인천대 교수 등과 함께 2013년에 책으로 펴낼 수 있었다.

이 교수는 "박경리에게 '일본론'을 집필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언과 작가의 역사적식으로 직조한,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일본 사용설명서'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박경리 컬렉션'을 출간하고 있는 다산책방이 다시 펴냈다.

다산책방은 최근에는 박경리가 1962년 발표해 필명을 처음으로 널리 알린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재출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창작과비평' 57년만에 200호 펴내

기념 기자간담회 "대전환 위한 담론 구축할 것"

"슬로(slow) 매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박자 쉬어가면서 곱씹어 보고 흠여 놓기거나 가리앉은 부분도 갈무리할 수 있죠."



한 담론 발신의 장을 추구해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계간 '창작과비평'의 황정아 편집부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린 200호 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종이 잡지 시장의 변화와 한계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편집부장은 '창작과비평'이 걸어온 길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네 글자로 정의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패스트(fast) 매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잔잔히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그는 "한글로는 '한결같되 날로 새롭게'라는 뜻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의 변화, 사람들의 감수성 변화 등에 맞춰 이상적인 것과 현실을 결합해 구현할 길을 찾겠다는 취지를 잊고 있다"고 말했다.

1966년 창간 이래 다양한 한국 문학과 사회 담론을 논한 '창작과비평'이 200호를 내놓았다.

한때 대학생, 지식인들이 품에 안고 다녔던 잡지는 1970~80년대 판매금지 처분, 강제 폐간, 출판사 등록 취소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57년이 지나서야 200번째 공론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서 "2016년 (창간) 50주년 이후 '대전환'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겨왔다. 이상주의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대전환을 위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론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남주 편집부장은 "문예와 정론을 겸하는 비판적 종합지로서 200호까지 맞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그간 한국 사회 전환을 위

채소도 고맙고, 해님·바람도 고마워

조오복 시인, 동시집 '웃는 접시' 펴내...사물에 동심 투영

"요즘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 대요. 저도 아주 많이 부끄럽고 떨리지만, 용기 내어 어린이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 좀 하겠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공부는 물론 열심히 뛰어 놀 수 있기를 기도하겠어요."

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감성으로 사물과 일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조오복 시인이 세 번째 동시집 '웃는 접시'를 펴냈다.

"잘 익은 고추/ 커다란 명석에 말리는 할머니// -고맙지, 고맙지!/ 흥얼흥얼 노래 부른다// 할머니,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때 맞춰 내려서 키워주는 비/ 빨갭게 잘 익혀주는 해님/ 잘 마라라고 불러주는 바람/ 모두모두 다 고맙지.// -그럼, 저는요?// -무럭무럭 잘 크는 우리 건초니/ 말 할 것도 없지/ 암만-, 고맙고말고"

이번 작품집은 시인이 코로나 3년 동안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펴낸 동시집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조 시인은 주변의 사물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위 시 '고맙고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심성이 투영돼 있다. 채소를 보면서도 고맙고, 해님과 바람도 고맙다. 또한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무럭무럭 무탈하게 크는



손자도 고맙다.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시인의 감성과 언어는 소박하지만 깊고 따스하다.

이성자 아동문학가는 "조오복 시인의 동시시 정이 많고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인지 56편의 시를 읽는 내내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이런 시작법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거예요"라고 평한다.

한편 조오복 시인은 2019년 아동문예에 동시 '동물원에서'로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왔다. 동시집 '행복한 튀밥', '페인트칠하는 담쟁이', '웃는 접시'를, 그림책 '은행잎과 바람개비', '까미와 꼬물이'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